

문제 1

1. “가,다,라는 모두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그러나 각 개인이 집단을 이루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다,라와 달리 가는 집단이 아닌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가에서 개인인 공평한 관망자의 관점으로 사회 체제의 규칙이 조정되고 욕구체계의 만족이 극대화되고 이를 상상력으로 보장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집단이 아닌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시문의 순서에서 가가 첫 번째이다.” 순서는 맞으나 근거가 이상합니다. 지금 발문은 개인이 사회(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입니다. 물론 (가)는 개인이 영향을 미치는 게 맞지만, 제시문 (다), (라)도 개인이 집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가 나머지 제시문보다 영향력이 높다는 걸 증명하려면, ‘개인’을 기준으로 근거를 서술해 주셔야하는데, (다)와 (라)는 집단이 영향력을 미친다고 서술함으로 근거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근거가 이해하기 힘드니, 주장(결론) 또한 이해하기 힘들겠죠?
2. “ 한편 라에서는 사회집단은 개인보다 비도덕적이라고 본다.왜냐하면 자연적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세력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또한 개인의 이기적 충동들이 합쳐져 집단의 이기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가 (라)에 비해 영향력이 큰 근거는 충분합니다. 다만, (라)에서 개인의 충동이 합쳐져 집단의 이기심이 나타난다고 서술하셨는데, 그럼 개인 -> 집단에 영향미침/ (라)도 개인 -> 집단에 영향. 이상하지 않나요? 생각하신 근거는 (라)는 이타적 개인이 이타적 집단을 만들고, (다)는 이타적 개인이 이기적 집단을 만들어서~ 영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때, 개인은 이기적 충동이 조금~ 있으니까 영향력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서술해주셔야 논리적 오류가 사라집니다. 근거서술이 부족하네요.
3. 최종 문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 문단들에 대한 서술들이 완벽하지 않으니 글자수가 부족해 지는 건데, 위의 내용을 보충하고 마지막 문단을 삭제하셔야 더 완벽한 글이 될 듯 합니다.

문제 2

1. “ 제시문 [다]에 내포된 해법은 개인의 관점으로 <문제 2>의 갈등상황을 보는 것이다.제시문 [다]에서 집단은 개인보다 집단적 이기심이 있어 비도덕적이다.그런데 집단이 아닌 개인은 동정심과 배려심이 있고, 사회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상충된 요구와 주장들을 개인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문제 2>의 갈등 상황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 가와 나를 통한 대응은 완벽합니다. 다만 여기서 개인의 관점을 통해 사회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발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때, ‘개인’의 관점을 도입할 수는 없죠. 제시문 (다)는 개인이 사회가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다시 개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따라서 논리가 오류입니다.
2. “ 제시문 [라]에 내포된 해법은 개인의 도덕성을 기르는 것이다.제시문 [라]에서는 시민들이 도덕적이지 않으면 시민적 화합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즉 제시문 [라]에서는 개인의 도덕성과 집단의 도덕성이 일치하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한다.그러므로 개인의 도덕성을 기르는 것이 <문제 2>의 갈등상황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시문 (라)에서는 개인이 도덕성을 길러야 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시문에 근거하지 않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3.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최종 문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와 라의 서술이 완벽해지는게 더 중요합니다. 물론 최종 정리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 의도는 최종 정리는 모든 답안이 완벽하게 서술된 이후, 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